



인터뷰 '거지 성자' 페터 노이아르

페터 노이아르는 1941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서 태어난 그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의 해군복무 이후 제지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혁명을 체험한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불교사원에서 수도했다. 1980년 독일로 돌아와 아나기리카 즉, '집 없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28년간 필른대 중앙도서관 호숫가 숲속에서 자며 집, 돈, 여자가 없는 '3무(三無)'의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 늘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그의 일과는 유기농산품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얻어 하루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장서 500만권의 필른대 도서관에서 독서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란 남은 누더기와 작은 손수레, 보자기, 실과 바늘이 전부지만, 명명한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에게 고민, 신앙 답을 해주며 불법을 전하고 있다. 1980년대 독일에 유학한 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대표 전재성 박사는 필른에서 그를 만난 후 감명을 받아 지난 1999년 '거지 성자'란 책을 펴냈다. 숙련적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도 인기를 얻었으며, KBS 일요 스페셜에서 그의 삶을 방영해 널리 알려졌다.

국내에 '거지 성자'로 알려진 독일인 페터 노이아르(67가 네 번째로 서울에 왔다. 3월 15일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만난 그는 맨발에 검은 잠바 차림으로 기부자를 한 채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삶의 소중함'과 '맑은 마음(心)'이 바로 도량임을 전했다. 그의 이번 방문은 1999년 자신의 이야기를 '거지 성자'라는 책으로 펴낸 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최근 초기 불경 <앙굿따라니까야(중일아함경)> 전집을 완역한 전 박사의 완간 기념 불정식(2월 23일)에 초청된 후 서울에 머물고 있다.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의 통

역과 전 박사의 해설로 진행된 다음카페 '구도역경'(cafe.daum.net/kuknyukjung) 20여 회원들과의 이날 만남은 재가자의 수행과 무소유, 대운하 등 다양한 주제로 문답이 이어졌다. 문답 내내 그는 '세기를 관통하는 무소유 정신의 실천자'란 찬탄만큼이나 진심하고 겸손했다.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친구처럼 대하면서, 저 구도생들과 파벌로 돌아놓고 있는 현대 서구문명에 대한 반성과 유망을 버린 무소유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문답을 요약했다.

# “대운하, 경제논리만 따져선 안돼”

-이번이 네 번째 방한으로 안다. 그동안 보고 느낀 한국 불교와 불자들에게 대한 인상은.

“한국 불교는 외형적으로는 크고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법의 흐름이 약해진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고 진지하며, 불심이 깊고 수행에 열심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 특히 보조지눌 스님의 저서에 나타난 생생한 개혁 의지와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에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요즘 대운하 건설이 이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운하와 관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운하 건설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사람과 자연의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운하 건설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 운하를 건설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세금만 잡아먹는 '완전한 재앙'이 되고 말았다. 환경·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란서 혁명 때의 정치가 탈레랑은 '세상에 얼마나 쓸모 없는 일들이든이 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논리만으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선생은 1999년 처음 방한했을 때 섬진강과 동강을 둘러보고, "내 생애에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찬탄한 적이 있다. 그때 동강댐 건설과 관련,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게.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석을 왜 한 줌의 돈에 얽매어 물속에 가라앉히는가?"라고 반대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정치인이나 시민들에게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조언해 달라.

“부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카비르도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자연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연을 보존하는 길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살인을 당하지 않

으려면 남을 죽이지 말고, 속인수·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예외 없는 인과법칙이다.”

-선생은 “지금 우리는 2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인류의 파멸을 촉진하듯, 자연을 파괴한 적이 없다. 소우유가 우리 삶의 터전인 공기와 물,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무소유'의 참뜻은 무엇인가?

“소유란 탐진치(貪瞋癡)가 있다는 뜻이고, 무소유란 탐진치 삼독(三毒)이 없는 것이다. 5계를 지키면 무소유고, 지키지 않으면 소유다. 무소유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임제선사는 불성을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

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불행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나도 부처님처럼 마음 가까이에서 머물며 탁발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生老病死)로부터의 해탈'을 회두로 수행해서 열반을 증득했다. 이것을 근본회두로 볼 수 있는가.

“사실, 선종에서는 다소 모방적이고 위선적인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생로병사에 대한 큰 의심을 회두로 본다면 '근본회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어떤 수행이든 모방으로 해서 안 된다. 몸과 인과 마음의 문을 지키고, 팔정도를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생은 '거지성자'에서 "오랜 수행 결과 저

## 재앙으로 끝난 독일 대운하 사례 거울 삼아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시)이라고 불렀다'이다. '나에 대한 집착(我執)'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法執)'마저도 놓아야 한다. 강을 건너 뗏목마저 버리는 것이 무소유 완전한 해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새가 날개의 무게로만 날듯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라고 가르쳤다. 또 공양을 얻기 위해 마을에 들어갈 때도 '벽에 비친 달 조각만큼만'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각오로 진리를 찾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출가정신이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명상하기란 쉽지 않다. 부처님처럼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보는 것은 소중한 수행이다. 웃도 주워서 입어보고 걸어도 해보면 정신적으로 깊은 경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해서 세간과 멀어지는 것이 아

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선생의 깨달음은 어느 도과(道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도과를 얻은 바가 없다. 무상(無常)정도는 얻은 바가 없어야 한다. 오로지 초발심으로 정진할 따름이다. 사람이 겪는 생로병사의 현상세계는 환상일 뿐이다.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고 지복과 환희의 땅에 도달한 것이다.”

-끝으로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진리는 실천할 수 있을 때만이 값진 것이다. 어떤 길처럼도 삶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쌍둥이까야> <맛지마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등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자명해서 하나라도 숨긴 것이 없다. 분명한 가르침(法)을 스스로 삼아 법문 한 마디라도 깊이 사색하고 실천해 보라. 금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글=김성우 객원기자·사진=박재원 기자

<p><b>불자 정보</b> 672호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p>	<p><b>도심포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li> <li>● 부자명당터</li> <li>● 약 50평, 2층</li> <li>●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li> <li>● 3천만원, 월70만원</li> <li>●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li> <li>● 급 양도</li> </ul> <p>017-265-9367</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하동</li> <li>● 총 평수 790평</li> <li>● 법당 20평</li> <li>●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li> <li>● 비구니 스님 기도처</li> <li>● 주차시설 완비</li> <li>● 가액: 2억</li> </ul> <p>010-3138-4897</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밑집지(포교의 최적지)</li> <li>●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li> <li>● 법당, 중무실, 방2, 공양간, 복선시설완비</li> <li>● 즉시 법회 및 수시가능</li> <li>● 보증금 3천만원, 월16만원</li> <li>● 시설비: 꼭 하실분 절충</li> <li>●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li> </ul> <p>010-2774-1250 031)653-0355</p>	<p><b>사찰(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li> <li>● 평수: 250평</li> <li>●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li> <li>● 요사채 30평, 주차실, 중무소 6평</li> <li>● 전세 6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li> <li>●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li> <li>●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안내</li> </ul> <p>055)674-5978 011-9393-2323</p>	<p><b>토굴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남 보령시 (광천역 택시 5분거리)</li> <li>● 산기슭 토굴</li> <li>● 특징: 25평. 땅은 종정땅</li> <li>● 방2, 욕실, 마루, 부엌, 창고</li> <li>● 텃밭있음</li> <li>● 산 공기기 매우 맑음</li> <li>● 가액: 1500만원</li> </ul> <p>032)883-4799</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30평</li> <li>● 2층법당, 영가단, 거실, 주차실, 공양간, 세면실</li> <li>●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li> <li>●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li> </ul> <p>011-506-4661 011-545-5060</p>
<p><b>토굴 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곽리</li> <li>● 5,064㎡(약1500평) 입야</li> <li>● 가액: 평당 28,000원</li> <li>●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li> </ul> <p>011-647-4444</p>	<p><b>사찰 터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평수: 260평 (실평:308평)</li> <li>● 황토건물 31평(남해지역) 현재 창고 100평</li> <li>● 가액: 2억원(절충가능)</li> <li>● 창고 별도 양도가능</li> </ul> <p>011-844-4037</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강북구 우이동</li> <li>●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li> <li>● 방2, 삼당실, 주방</li> <li>● 최고급 시설</li> <li>● 급 부처님, 목불 좌대</li> <li>●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li> <li>● 시설비 4천만원</li> </ul> <p>011-9725-3196</p>	<p><b>사찰(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전남 화순 동면 면소재지 교통편리함</li> <li>● 대지: 200평</li> <li>● 2층 법당 20평</li> <li>●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li> <li>● 법당집기 일체 보시하고</li> <li>● 가액: 1억9천만원</li> </ul> <p>010-3805-3382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 양평군</li> <li>● 대지: 600평</li> <li>● 법당: 100평(1.2층)</li> <li>● 요사채: 50평</li> <li>● 산신각 8평(1.2층), 창고 1</li> <li>● 법당 시설완비</li> <li>● 가액: 8억원 (상당 후 절충가능)</li> </ul> <p>011-477-0671</p>	<p><b>사찰 터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성주대교 7분거리</li> <li>● 대지: 약600평</li> <li>● 절터 앞 저주지 있음</li> <li>● 가건물 2동, 원건물은 건축중단</li> <li>● 차량진입 가능, 조용한 명당절터</li> <li>● 사정상 급 안내</li> <li>● 가액: 1억 6천 3백만원</li> </ul> <p>017-804-1234</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 수성구 근교(주택밀집)</li> <li>● 대지: 200평</li> <li>● 넓은마당, 풍부한 물</li> <li>● 법당, 산신각, 친견실, 요사채, 방4</li> <li>● 집기 비품완비, 즉시 법회 생활</li> <li>● 불상 탱화 제의 가능</li> <li>● 보증금 100만원, 년200만원</li> <li>● 시설비 1천만원</li> </ul> <p>010-6780-6271</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 금정구청 주변</li> <li>● 평수: 40평 법당, 방2, 주방</li> <li>● 주차시설완비</li> <li>●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li> <li>● 시설비 포함</li> </ul> <p>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사 모집</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봉화군 물야면 (대백산 오전 약수탕)</li> <li>● 부지: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li> <li>● 건물: 법당 25평 (중앙복 5포 7포, 단청, 삼단 닻집)</li> <li>●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li> <li>● 현대식 부엌, 화장실</li> <li>●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li> <li>● 가액은 협의 후 조정</li> </ul> <p>017-848-3330</p>	<p><b>포교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송파구 석촌동(송과역2분거리)</li> <li>● 총평수: 65평, 삼존불, 동불상</li> <li>● 법당, 방 2, 주방 1</li> <li>● 주차가능, 에어컨 3대</li> <li>● 살림일체완비</li> <li>● 즉시법회가능</li> <li>●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li> <li>●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li> </ul> <p>010-3088-3133</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중심지 사찰</li> <li>● 대지: 230평</li> <li>● 법당 25평, 요사 50평</li> <li>● 주차시설완비</li> <li>● 가액: 7억원</li> </ul> <p>● 위치: 부산중심지 산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80평, 법당 20평(슬라브)</li> <li>● 요사 40평(슬라브)</li> <li>● 가액: 2억6천</li> </ul> <p>018-554-6198</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도</li> <li>● 대지: 1,206㎡(약366평)</li> <li>● 입야: 130㎡(약40평)</li> <li>● 요사: 198.24㎡(약60평)</li> <li>● 대웅전: 109.44㎡(약33평)</li> <li>● 삼성각: 30㎡(약9평)</li> <li>● 실사용평수: 약 600평</li> <li>● 7층식당, 정남향, 산세수려</li> <li>● 가액: 답사 후 협의</li> </ul> <p>011-9143-0098</p>	<p><b>포교당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 구포</li> <li>● 2층 건물 중 2층 50평</li> <li>●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li> <li>● 즉시법회가능</li> <li>●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li> <li>● 시설비 2800만원</li> </ul> <p>011-591-5277</p>	<p><b>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북 영동</li> <li>●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li> <li>● 앞에는 금강수가 흐르고 북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북터</li> <li>● 평당 5만원: 1100평</li> <li>●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li> </ul> <p>010-3545-9992 043)732-2756</p>